

11/20/22

설교 제목: 온 땅이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시편 100 편 1-5 절

(시 100: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 100: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 100: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 100:4)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 100:5) 대저 여호와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2022 년 추수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하십니다.

(살전 5:16)항상 기뻐하라

(살전 5:17)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5:18)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왜 어떻게 감사하느냐고요?

본시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시의 제목은 '감사의 시'입니다.

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대 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며 불렀던 찬송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삼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삼대 절기가 모두 감사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430 년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여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 또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은 그 해 첫 소산을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은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창고에 들이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본시는 5 절로 구성되어진 아주 짧은 시입니다.

1 절에서 3 절, 4 절에서 5 절에 걸쳐 찬양에로의 초대와 찬양의 이유를 반복해 명시함으로써 온
땅이 누구에게 무엇을 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1, 2 절에서 온 땅을 찬양에로 초대하고 3 절에서 찬양의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4 절에서 다시 감사 찬양에로 초대를 하고 5 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시인은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라고 합니다.

(시 100: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온 땅 전 우주를 감사에로 초대합니다.

그는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깨닫고 온 이방 온 세계가 회개함으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앞에 나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는 크게 외치다 혹은 개가를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수도성에 입성하는 왕을 환영하거나 혹은 왕의 행렬을 맞이할 때 백성과 신하들이 그에 대한 복종과 경의를 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인은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여호와의 왕권과 통치를 선포합니다.

(시 100: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인은 여호와를 섬기되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섬기지 말고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벅찬 감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행위는 단순히 예배와 찬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삶을 감사로 채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인은 온 땅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고 찬양하며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 100: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신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유일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의 소유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한 구절에 시인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으셨다’는 말은 만듦다 낳다 지정하다라는 의미로 태초의 창조보다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시인은 다시 한 번 모든 나라 백성이 언약의 백성의 본을 좇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초청합니다.

(시 100:4)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문’과 ‘궁정’은 모두 성전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으므로 합당한 요건만 구비하면 누구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는 자비가 무한하시고 인애와 성실하심이 다함이 없고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만백성이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시 100:5) 대저 여호와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돌보아 주시니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장구한 기대와 소망으로 본시를 끝맺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세토록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선하시고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만드시고 백성 삼아 주셨으며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 23:1)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 23: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 23: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 23: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분의 양입니다.

선하시고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하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사 55:8)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사 55:9)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완전하고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